

범안로 특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대구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 실패사례인 범안로에 관한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대구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희)는 조사에 앞서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5일 특위 첫 회의시에 집행부에 요구한 범안로 건설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특위 소속 시의원 7명과 건

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시 건설방재 국장과 도로과장, 외부전문가로는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김갑수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대표 등 5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구의 대표적인 민투자 사업 실패사례인 범안로의 무효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범안로 문제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통수요량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한 계약수정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범안로 해결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